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중국청년정치대학교	기숙사비	750000/한 학기
파견지역	베이징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파견기간	2017.9~12	기타비용	

##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신문방송학과
성 별		학 년	4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1. 17 .

파견자 : ( 서 명)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분반고사를 보고 난 뒤 반이 결정된다. 반은 A1, A2, B1, B2, C1, C2로 구성되어 있다.

A1, A2반은 HSK기준 3~4급 수준, B1, B2반은 4~5급 수준, C1, C2반은 5~6급 수준의 수업이다.

수업은 월~목요일까지는 6교시 수업이고 금요일은 4교시까지 수업이 있다.

나의 반은 A1반이었고 A1반의 과목은 종합, 텡슈어, 두씨에 총 3과목의 수업을 들었다.

A1반은 낮은 반이라 선생님들이 수업 할 때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수업했다.

종합 수업은 매일 4시간씩 들었다. 텡슈어와 두씨에는 일주일에 두 번, 2시간씩 들었다.

종합 수업은 매일 받아쓰기를 하고 단원 마다 상황극을 하기도 하며 학생들이 중국어를 쓰도록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발표 수업도 2번 정도 있었다. 숙제가 굉장히 많은 과목 이여서 숙제를 하다가 하루가 끝나기도 했다.

텡슈어는 듣기 문제를 풀고 난 뒤 상황극을 따라하는 수업으로 진행했다. 텡슈어는 선생님이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이려 우여곡절이 많은 수업 이였다. 수업 초창기에 낮은 반 수업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못 따라갈 때 마다 선생님이 답답해 하는게 눈에 보여서 수업 개선이 필요한 과목이였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수업시간에 다른 선생님들이 참관을 자주 들어오셨다. 점차적으로 수업 방식이 바뀌면서 후반에 가서는 초창기 때 보다는 괜찮았다. 두씨에 과목은 수업 초창기에는 단어위주의 수업을 하다가 수업 후반에는 독해와 작문 수업을 진행했다.

청년정치대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학생들이 도와 달라고 하면 흔쾌히 도와 주신다.

또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수업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선생님들 수업 평가가 이루어진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위치는 베이징 중심은 아니고 베이징 외각에 위치해 있다.

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였다.

놀러 나갈려면 30분에서 1시간은 이동해야 했고 택시비가 싸서 택시를 자주 이용했다.

베이징 기후는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날씨가 맑고 좋았고 나머지 날은 미세먼지가 주로 있는 날이 많았다.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다.

베이징 겨울은 한국과 달리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한국보다 더 춥다고 느꼈다.

학교 안에는 슈퍼, 식당, 미용실 등 순천향대와 비슷했으며 앞이나 주변에 먹을 곳이 거의 없어 기름칠 하고 싶은 날에는 15분~20분 정도 걸어 나가야 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비 용	750000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1. 냉장고 사용 시 비용 지불 2. 충전식 세탁카드 사용		
주의사항	1. 12시 이전에 들어오는 게 좋다. (12시 이후에는 이모들을 깨워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해야 한다.) 2. 기숙사 입사 시 보증금 1000위안 지불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사

부

유학생은 유학생 기숙사가 따로 있다.

기숙사 1,2층은 남자 3,4층은 여자들이 거주하였다.

1층 로비에 이모들이 계시고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모들에게 말하면 된다.

2인 1실이고 방은 크지 않다.

낡은 여관집에 온 것 같았다.

이모들이 매일마다 청소를 해줘서 청소는 딱히 하지 않았다.

장롱은 쓸 만했고 크진 않았다.

냉장고는 방마다 복불복이여서 큰 냉장고가 있는 방도 있었고 작은 냉장고가 있는 방도 있었다

큰 냉장고는 이용 요금을 더 달라고 해서 어이없

었다.

티비는 필요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방 크기가 작아서 수납 공간이 마땅하지 않았다.

화장실은 향설 생활관 화장실 크기이고

변기가 자주 막혔다.

방에 바퀴벌레나 작은 벌레들이 자주 나오기도 했다.

세탁카드는 충전해서 쓰는 식이고 층마다 2대 있었다.

세탁기에 빨래만 돌리면 먼지가 엄청 붙었다.

중국에서 세탁할 때 세탁망은 필수인 것 같다.

공동주방도 층마다 있었는데 요리를 해먹을 만한 곳은 아니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학교 캠퍼스는 작은 편이고 둘러 볼 것이 없다.

사진에 있는 건물이 본관이고

유학생들은 다른 건물에서 수업을 들었다.

작지만 캠퍼스안에 식당, 과일 가게, 슈퍼, 미용실, 카페 있을 만한 것은 다 있다.

강의실은 쾌적하고 깔끔하다.

우리 학교 강의실 보다는 작지만 책상이나 구성이 조금 비슷한 것 같다.

학교 운동장은 순천향대와 비슷하다.

배드민턴, 탁구를 칠 수 있는 체육관도 있다.

체육관을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한다.



학생 식당은 3층까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많다.

2층에 한식과는 곳이 있어서

가끔 한국 음식이 생각나면 가기도 했다.

학생 카드로 밥을 사서 먹고 학생 카드에

돈이 없으면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청년 정치대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학기 초반에는 이것저것 시도해 보기도 했다.



## 교환학생 파견 수기

고학년이 되니 학교 생활에 지치기도 했고 대학 생활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중국 교환학생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설렘 가득 했지만 중국으로 떠나야 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설렘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크게 다가왔었다. 막상 중국에 가니 정말 별 거 없었다. 왜 걱정했나 싶을 정도였다.

중국에서 생각보다 여행을 많이 했다. 국경절에는 내몽고 여행을 갔다. 정말 긴 시간을 이동해서 지치기도 했지만 수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본 것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11월 달에 학교에서 언어실습기간이라고 여행을 보내 주는 기간이 있는 데 그 때 칭다오, 텐진을 갔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행이 되었다.

반끼리 활동이 많은 편이어서 반 학생들끼리 밥도 자주 먹고 놀러 가고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었다. 또한 학기가 끝나 갈 때 신년회를 주최하는데 반 마다 노래, 춤을 준비해서 보여줘야 한다. 우리반은 노래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해 색 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쌓은 외국인 친구들과의 추억은 나의 마음 한 켠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 실력도 향상시켰고 외국인 친구도 사귄 수 있었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기도 했다. 처음의 나처럼 두려움과 걱정이 들 수 있으나 그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다 헤쳐 나 갈 수 있으니 자신을 믿고 교환학생을 하는 것을 정말 추천한다.